

남자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경험

정옥분¹ · 박현주²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¹, 동의과학대학 간호과 조교수²

Experience on Delivery Room Practice of Male Nursing Students

Jung Ok Bun¹ · Park, Hyun Joo²

¹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experience in delivery room practice of male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is qualitative research using focus groups. Data were collected by group interviews from May 22 to June 20, 2010. Th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14 male nursing students who had experience clinical practice in delivery room.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laizzi's method, in which meaningful statements were extracted. **Results:** Five theme clusters were identified from thirteen themes and twenty four sub-themes. The five theme clusters were 1) cultural perception of gender role, 2) perceived reality of male nurse, 3) difficulty in approaching clients, 4) counter-educational environment, 5) insight and new perception. **Conclusion:** For the purposes of remedying male nurse students' problems experienced during clinical practice in delivery room, it seems that there is a need for reeducating nurses' perception of male nurse students and develop programs specially dedicated to clinical practice of male nurse students.

Key Words: Male, Nursing students, Delivery room, Practice, Experienc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여성 고유의 직업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산업화의 발달과 함께 느슨해지면서 최근 간호직의 직업적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남성이 소수를 차지하는 분야에 도전하면 그 분야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성취욕을 가지고 간호학을 지원하는 남학생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Boughn, 2001; Evans, 2004).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국 간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수는 2003년에는 938명에서 2006년에는 2,021명, 2,008년에는 5,437명으로 보고되어(Korean Nurses Association, 2009)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반영

하고 있다.

전문직 간호사를 육성하기 위한 간호교육 과정에는 이론적 측면과 임상실습 과정이 필요하며 간호의 전문화에 따라 최근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임상실습교육은 학생들이 이론적 지식을 간호의 실제상황에 적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 기술이나 행동방향을 터득하고 건강관리기관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Halstead, Rains, Boland, & May, 1996).

이와 같이 임상실습교육은 졸업 후 임상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때 적합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간호직이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으며 지금까지의 교육방법이 여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남학생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 간호학생들은 실습과정 중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주요어: 남자, 간호학생, 분만실, 실습, 경험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Hyun Joo,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College, 152 Yangi 5-ro, Busanjin-gu, Busan 614-715, Korea. Tel: 82-51-860-3281, Fax: 82-51-860-3450, E-mail: phj7281@hanmail.net

투고일: 2011년 1월 20일 / 1차심사완료일: 2011년 2월 23일, 2차심사완료일: 2011년 3월 4일 /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4일

남자간호학생들은 간호학 전공을 통하여 남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거나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긴장과 불안이 있으며(Kim, 2004), 여자간호학생 중심의 환경, 불평등한 실습기회, 다수 집단으로부터의 고립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O'Lynn, 2004).

임상실습 중 분만실 실습의 주된 내용은 정상 임신, 분만, 산욕간호뿐만 아니라 여성질환 사례를 중심으로 분만실과 산부인과 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출산율의 저하는 간호학생들이 분만사례를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실습 현장에서 단순한 기능적인 업무위주로 실습을 받고 있어서 임상실습의 내용영역과 환경영역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2001).

특히 금남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분만실 실습은 남자간호학생에게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학습 현장이지만 성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남자간호학생들은 분만실 실습을 제외시키는 교육환경의 문제점이 대두되었고(Choi, 2002), 여자 환자와의 대인관계 형성 시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성 역할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Haywood, 1994; Choi, 2002).

이러한 대인관계의 경험 부족,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불신감 등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잃게 하며 부적합성을 경험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학습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간호사라는 직업의 선택에 대해 회의를 가져오기도 한다(Ha, Han, & Choi, 1998).

따라서 간호의 전문적 인식과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변화의 추세에 따라 간호직도 조직 내에서의 적응과 융화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전문직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부터 남녀 차별 없는 교육적 환경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자간호학생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남자간호대학생의 생활과 전공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Lee, Kim, Doo, An, & Lee, 2005; Choi, 2002; Kim, 2004), 남자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질적 연구(Lee, 1997; Choi & Park, 2001)와 신생아실 실습경험에 대한 인식유형(Baek & Lee, 2005), 전공만족과 성정체감(Lee, 2004) 등이 있었다. 그러나 남자간호학생으로서 임상실습 시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분만실 실습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focus group 연구방법은 주제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느낌이나 경험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집단 상호작용으로 상호간의 의견과 경험

속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잘 조직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Kim, Kim, Lee, & Lee,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자간호학생이 분만실 실습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남자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의 장애를 이해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focus group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남자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분만실 실습 경험이 있는 3년제 간호대학 3학년 남학생 7명과 4년제 간호대학의 4학년 남학생 7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의도표집 하였다.

2. 포커스 그룹 구성

Focus group은 동질성 확보와 분할 전략에 따라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집단 간 차이를 통해 서로 다른 시각과 견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집단의 크기와 수는 실용적,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6~10명 정도의 크기와 3~5개 집단이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Kim et al., 1999) 이점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남학생에게만 국한된 점과 실습순환에서 분만실 실습과정을 모두 마치는 시기가 마지막 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3년제 남학생 집단 1개, 4년제 남학생 집단 1개로 구성하였다.

3. 포커스 그룹 진행

Focus group interview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 모임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주제에 적합한 연구 질문을 만들고 연구자간에 모의면담을 시행하여 질문내용의 타당성과 면담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일정은 참여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

화를 통하여 각 집단마다 전 참여자들이 동의하는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였다. 면담일시 및 장소는 외부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여섯시에서 여덟시 사이에 간호학과 강의실로 하였으며, 저녁시간임을 고려하여 차, 다과 등을 준비하였다. 각 면담 시에는 연구자 2명이 모두 참여하여 면담을 진행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이 포함된 연구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녹음 및 메모를 하였다. 면담시작 시에는 참여자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여 집단 내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의 근황이나 기분을 묻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시작하여 연구 질문으로 옮겨갔다.

Focus group interview가 끝난 후에는 연구자들이 면담 도중 떠오른 중요한 주제나 내용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여자의 진술의 의미를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였고 토의내용은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집단 면담은 2010년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1달간, 한 집단 당 2번씩 면담을 시행하였다. 1회당 집단 토의시간은 9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집단면담에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주 질문: “분만실 실습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보조질문: “분만실 실습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분만실 실습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분만실 실습이 다른 임상실습과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4. 자료분석

참여자의 진술과 현장노트의 기록내용에 대한 분석은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자와 면담한 녹음테이프를 반복해 들으면서 옮겨 적은 뒤 필사된 기술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의미 있는 구나 문장을 모두 찾아 비슷하거나 같은 진술들끼리 연결하였으며, 연구현상과 직접 관련되는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낸 다음 그 진술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의미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구성된 의미는 하위주제, 주제, 주제모음으로 구성하였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의뢰하여 원 자료와의 일치 또는 모순 여부를 살피며 도출된 주제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기본구조를 확인하고 현상을 서술한 후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연구현상과 관련시켜 기술하였으며 기술된 주제와 중심의미 및 예제로 사용된 참여자의 진술을 연구참여자 4인에게 보여주어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자에게 면담 도중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개인적인 정보,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결과에서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진술내용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설명하였고 이상의 내용을 참여자가 충분히 이해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6.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Lincoln 과 Guba (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면담 시작 전 연구목적에 상세히 설명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면담 중간에도 참여자들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하는 동안 모호한 진술이 있는 경우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진술의 의미를 확인하였으며, 도출된 의미와 주제를 참여자에게 보여주어 참여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담결과를 심층 기술하여 focus group 간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였고, 각 참여자 및 그룹간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에서는 연구자간 분석과 논의를 통해 일차분석을 거친 후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의뢰하여 연구자에 의한 분석과 비교함으로써 분석된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면담 시작 전에 남자간호사의 분만실 실습에 대한 연구자간의 선이해와 가정에 대한 토의를 하여 연구자의 주관의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남자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 경험은 34개의 구성된 의미에서 23개의 하위주제가 형성되었고, 다시 13개의 주제로 조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개의 주제모음을 구성하였다(Table 1).

Table 1. Experience on Delivery Room Practice of Male Nursing Students

Theme cluster	Theme	Sub-theme	Formulating meaning
Cultural perception of gender role	Perception of gender differences	Discomfortment from sexual differ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Felt embarrassed by young female nudity
		Discomfort from sexual differ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rsing young clients of the other gender was nervous Young female clients discomfort in the presence of male students
		Discrim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le doctors were free to access the delivery room but male students faced limitations
Perceived reality of male nurse	Not concerning oneself	Partiality towards male do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Female students were more allowed observation of delivery or nursing activities than male students
		Partiality towards female stud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d sympathy for the husbands' reluctance of having male students observe the delivery process Observing deliveries became an opportunity to deeply consider one's future role as a husband rather than a male nurse
		Recognition of masculine gender r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ternity nursing had many obstacles for a male nurse Thought it impossible to be employed in delivery rooms after graduation
Difficulty in approaching clients	Off-limits to men	Rejection of entry to delivery ro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jected by clients and their care-givers joining to delivery room Delivery room access restricted by doctors and nurses
		Limits on a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ts put on nursing intervention and observation to the clients Access to closed labor room limited
		Cowe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men clients did not welcome to their presence Must read nurses' mind during practice due to limits put on male students' voluntary actions
Perceived reality of male nurse	Cautious	Act according to the sit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came extra cautious because the women clients and their care-givers became edgy as delivery nears Male students found it difficult to start conversations beyond simple statements with clients
		Passive attit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uld not actively participate in clinical practice due to limited approach to women clients
		Duty eva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Put off interviewing with women clients or physical nursing to female students

Table 1. Experience on Delivery Room Practice of Male Nursing Students (Continued)

Theme cluster	Theme	Sub-theme	Formulating meaning	
Counter-educational environment	Lose of role	Nothing to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le students were not allowed to do nursing intervention Nurses did not give nursing orders to male students 	
		Feeling of impedi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Felt self as a hindrance in delivery due to inability to help 	
	Lack of standard educational systems	Nurses' inconsistent guidel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Each nurse had different rules and commands for access and nursing activities in delivery room 	
		Nurses' negl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rses neither reprimanded nor commented on the lack of efforts for male students in delivery observations or nursing 	
Learning and new perception	Wound of heart	Lack of delivery c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uld not see many cases of delivery during the clinical training period During delivery room shifts, video and text materials were used to pass the time instead because varied clinical situations were scarce 	
		Disinterest of clinical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st enthusiasm and interest because nurses put limits on nursing the clients 	
	Facilities for women	Inconvenience in daily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Felt that toilet usage was inconvenient due to nurses' unwelcoming attitude 	
		Appreciation for delivery proc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Felt the birth to a new life to be marvellous and incredible 	
	Supplement to education	Understanding the curricul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xtbook contents on delivery are easier to understand after practice 	
		Understanding and grateful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ympathy for women Could understand the women's hearts which are expressed through their unconditional love for their children Delivery room practice became an opportunity to thoroughly understand the female physiology 	
	Friendliness towards mothers and children	Gratefulness to one's mother	Gratefulness to one's m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rbored new gratefulness for one's mother after watching a painful deliv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came new interest and intimacy for pregnant women and newborns

주제모음 1. 성 역할에 대한 문화적 인식(cultural perception of gender role)

1) 성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gender differences)

분만실은 젊은 여성들의 분만 전·후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남자간호학생들은 여성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인 간호나 신체적 간호를 수행할 때 성 역할 긴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자신이 간호학생이지만 남자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여성 대상자와 상호작용하거나 간호수행을 할 때 민망함을 느꼈다. 또한 남자간호학생들은 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함에 대한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그거, 애 놓고 나서 이제 뭐 젖 주지 않습니까? 바로, 상호작용 해야 된다고.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때는 이제 산모가 웃통을 벗는 것을 저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보이 지 않습니까? 그 때도 되게 민망하구요. 그 때도 민망하고. 젖 주는 것도 민망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때는 젖이 커져 있지 않습니까? 상태가. 그러니까 또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딴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아닌데도." (남녀차이로 인한 민망함; Disconcertment from sexual differences)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눈치는 안 주는데 제 자신이 그게 너무 강하니까. 아, 이거 해도 되나? 어디를 좀 움직이더라도 분만실이 작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커튼 쳐 놓고 있으니까, 약간씩 커튼 이래 사람이, 환자분들이 보이는데 저도 볼라고 보는데 아닌데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 어디로 보려고 해도 볼 시선이 없는 거예요. 다 커튼이니까.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 자체가..." (남녀차 이로 인한 불편함; Discomfort from sexual differences)

2) 차별대우(discrimination)

남자간호학생들은 자신들은 여성 대상자의 분만과정을 관찰하는 것조차 제한을 받고 있지만 남자 의사는 여성대상자로부터 거부감 없이 진료를 할 수 있는 현상을 경험하면서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의사와는 차별적임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대우의 근원이 의사들은 전문적이고 환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참여자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의사는 남자가 많은데 의사는 보는 걸 당연시하는데, 저희는 학생신분이지만 만약 내가 간호사가 돼서 분만실에 가서 일하더라도 안보여주면 내가 간호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분만실에서 남자간호사를 안 뽑을 것 같고..." (남자의사와의 차별; Partiality towards male doctors)

뿐만 아니라 실습현장에서 남자간호학생들은 남자의사와의 차별대우가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 이외에도 간호사들의 남녀간호학생에 대한 차별화된 지도를 경험하였다. 간호사들은 의사나 여성대상자들이 꺼려한다는 이유로 남자간호학생들에게는 분만과정 관찰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태아심음 청취나 간호정보조사, 산모교육과 같은 간호활동을 여학생들에게 편중되게 허용하여 다양한 실습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여기 간호사 선생님께서, 원래 간호사가 안 그래야 되는데 스스로 간호사가 그걸 깨야 되는데 안 그러고 남자는 도플러 하지 말고. 저 의사 선생님은 남자 들어오는 거 안 좋아하니까 먼저 오는 거 보면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벌써부터 선을 그으니까 잘 안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학생과의 차별; Partiality towards female students)

3) 남자로서의 성 역할 인식(recognition of masculine gender role)

남자간호학생들은 임신부 및 보호자, 심지어 의사나 간호사들로 부터 분만 관찰을 거부당했을 때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분만과정에서 남자간호학생이 여성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며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는 분만과정에 비록 간호학생이지만 젊은 남자가 참여하는데 대한 남편의 불편한 마음이 이해된다고 하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보호자고 인제 남자 솔직히 학생이지 간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솔직히 학생은 저희도 알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도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 와이프가 지금 예민한 상태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인데 좀 숙달되지 않은 자가 곁에 와서 만질려고 하면 또 제가 생각해도 좀 싫을 것 같아요." (보호자의 거부반응을 이해함; Sympathy for husbands' denial of entry)

주제모음 2. 남자간호사에 대한 현실 인식(perceived reality of male nurse)

1) 상관없는 실습(not concerning oneself)

남자간호학생들은 실습을 통하여 분만실에서는 남자간호사로서 근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성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분만실에서 일하는 남자간호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졸업 후에도 자신들은 분만실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처음 오티를 할 때 선생님이 말씀을 해줘요. "가족분만실은 안 된다.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한테는 안 된다."그거를 굳이 그런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딱 그게 정해져 있는 그 처음부터는 그 걸 듣게 되니깐은 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좀 더 안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더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그렇게 되더라니깐요." (취업과 관련 없는 배움; Study of maternity nursing irrelevant to future career)

주제모음 3. 대상자 접근의 어려움(difficulty in approaching clients)

1) 금남의 집(off-limits to men)

분만실 실습의 특별한 점은 여성 대상자들이 질병이 아닌 정상적인 출산과 관련된 간호를 받는 여성으로서 의료인과 보호자 외에는 남성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진통과정에서도 개인별 대기실이 있어서 참여자 혼자서는 여성 대상자에게 자유롭게 다가가기 어려웠다. 특히 여성 대상자의 남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분만실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분만과정에 대한 관찰과 대상자 간호활동을 위한 접근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막상 가고나니 그냥 남자들은 여기 실습을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그 저기도 산모들 대하기를 꺼려 하지만 또 남잔데 산모들이 꺼려하지만, 산모님들도 저희를 보고 가는 걸 싫어하고, 가족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는데 보호자분께서 나가라.' 그리고. 저를 학생인줄 알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분만실 출입을 거부당함; Rejection of entry to delivery rooms)

또한 분만실은 분만과정에서 여성의 생식기가 노출되는 곳이라서 다른 병동과 비교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지가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남자간호학생들은 여성 대상자들의 신체적 간호활동 수행이나 관찰을 제한받게 되었다.

"환자분 접근하는 게 좀... 다른 데는 다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얘기도 걸 수 있고 한데, 분만실 경우에는 개인 공간이라는 게 있고 문도 닫혀있고, 제가 문 열고 들어가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가가기 어려워서 항상 간호사 따라가서 같이, 그때 잠깐 얘기해보고 그런식으로 하지 저희가 혼자 독자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활동의 제한; Limits on activity)

2) 위축됨(cowering)

분만실 실습에서 남자간호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눈치를 보는 일이라고 하였다. 다른 병동 실습에서는 주로 간호업무 수행능력 부족으로 간호사들의 눈치를 보았지만 분만실에서는 여성 대상자와 보호자들의 남자간호학생에 대한 불편한 태도로 인하여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다.

"눈치는 정말 많이 봤는데.. 2주 동안 실습하면서 제일 눈치 많이 본거는 산모분들. 아무래도 산모분들이... 그냥 제 스스로가 다가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모분들이 좀 편하게 있으시다gado 힐끔힐끔 쳐다보시고 저희가 들어가면 엔 에스티(NST)같은 것 하려고 하면 스크린 쳐 달라고 하시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좀 그렇게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깐 나중에 알아서 좀 이제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스스로가요." (주위의 눈치를 봄; Act according to the situation)

분만실은 극적인 고통의 과정 속에 출산이라는 인생의 의례와도 같은 일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산모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걱정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남자간호학생들은 자신의 행동거지에 대한 조심스러움으로 인하여 더욱 위축됨을 경험하였다.

"대개 진짜 사람들이 민감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뭐 신음소리부터 해가지고 고통도 호소하고. 보호자 분들도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남자일뿐더러 말을 걸

려고 해도 가가지고 그 산모분한테서 ‘괜찮습니까?’이런 말 했다가 되게 인상도 안 좋은데다가 이제 인상 찌푸리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기도 그렇고 그거.” (조심스러움; Cautious)

남자간호학생들은 자신들을 불편해하는 여성 대상자와 보호자들의 태도로 인하여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되면서 남자간호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검사나 간호활동의 수행에서도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나?’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실습에 임하게 되었다.

"어떤 개방적인 산모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엔에스티(NST) 같은 것 한두 번 정도 몇 번 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거는 저희가 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많이 소극적이기도 했어요. 무슨 검사 같은 거 한다고 해도 ‘따라가도 되나?’, ‘따라가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밖에서 망설이다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소극적 태도; Passive attitude)

또한 활력징후 측정을 제외한 여성 대상자의 신체와 접촉하는 간호행위 및 여성과 관련된 간호정보 조사를 수행할 때에도 이성 대상자와의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어 여자간호학생들에게 떠맡기고 자신들은 그 상황을 회피하였다.

"언제 뭐 폐경하셨어요? ‘이런거 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은 여자입장에서 묻는 거랑 남자가 여자한테 묻는 거랑 좀 상대방이 환자 분이 느낄 때에도 볼래할 수 있지만 저희가 말해야 될 때에도 민망하고 그런 게 있어서’아 가서 이거 물어도 되나?’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구요. 그 다음에 진짜 아까 전에도 얘기 했듯이 이런 행위를 제가 직접 해 줘도 되나 싶어서 여학생 친구들한테 떠맡겼는 것도 솔직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역할회피; Duty evasion)

주제모음 4. 비교육적 환경(counter-educational environment)

1) 역할상실(lose of role)

남자간호학생들은 분만실 실습 동안 관찰과 간호수행 모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간호학생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력징후 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듯 간호사들로부터 여성 대상자와 상

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여 남자간호학생들은 할 일 없이 시간을 때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바이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못 하는 사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완전 급했을 때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 못 하는 주제에 거기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는 너무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좋았다고 만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할일이 없음; Nothing to do)

또한 긴장되고 급박한 분만과정에서 남자간호학생의 입장으로 같이 참여하거나 도와주지도 못하고 한쪽 곁에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간호사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 나가버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 분만하고 계신데 옆에서 이래 보고 있어도 걸리적 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되게 수술방 자체가 좀 작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도 처음에는 여기서 보고 있다가 하나같이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미안해서 나가 버리고...” (방해되는 존재로 느껴짐; Feeling of impediment)

2) 교육체계의 부족(lack of standard educational systems)

남자간호학생들은 분만실 간호사들의 일관성 없는 실습 지도로 인하여 적극적인 임상실습에 방해가되었다고 하였다. 즉, 남자간호학생의 분만실 출입이나 임산부에 대한 간호수행을 격려하는 간호사가 있는 반면 이러한 행동을 꺼려하고 제한시키는 간호사도 있어서 산모간호라는 특수한 상황도 이해하지만 간호사들이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에 근거하여 지도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간호사 분들이 어떤 분들은 남학생들이 간호하는 거에 대해서 모성 실습와서 분만실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차별을 없이 대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산모 분들 계시는 곳으로 다가가는 것조차도 꺼려하시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저희가 2주 동안 실습현장에 있으면서 당연히 간호사 분들도 다른 그거 있으시겠지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관된 규범이라든지 그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호사의 일관성 없는 교육; Nurses' inconsistent guidelines)

그리고 다른 병동의 실습과 비교하였을 때 분만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실습을 하지 않아도 간호사들이 지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묵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남자간호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들만의 생각에 근거하여 일정한 지침 없이 행동하게 되었다.

"근데 선생님도 "가라.", "가서 보세요 학생들." 보고있다가 저희도 한 번씩 빠지고 저희도 그러다가 그냥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선생님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나왔노. 다시 드가라"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그게 끝인데 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건가 싶고..." (간호사의 묵인; Nurses' neglect).

특히 최근 출생률 감소 및 임신부들의 종합병원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실습기간 동안 분만사례를 보기가 어려워 비디오 시청, 책보기 등으로 시간을 때우는 경우도 있었으며 간호활동도 활력징후 및 혈당측정과 침상 만들기와 같은 다른 병동실습과의 차별성이 없는 내용으로 분만실 실습의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냥 거의 이론으로만. 완전 책으로만, 책과 비디오로만 봤어요. 못 봐가지고. 저의 같은 경우에는 3명 같이 했는데 실습 2주 동안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황당해 가지고, 그래서 모형으로만 하고. 엔에스티 하는 거만 두 번 보고 그 안에 앉아서 책보고 공부하고" (분만사례의 부족; Lack of delivery cases).

3) 마음의 상처(wound of heart)

남자간호학생들은 분만실 실습을 통하여 가장 서운했던 점은 자신들에 대한 산모나 보호자의 태도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믿었던 간호사들의 태도라고 하였다. 간호사들이 '남학생이니까 하지마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활동을 제한시켰을 때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분만실 실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유방 마사지 교육한다고 저희가 준비를 해갔는데, 남학생은 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준비한 교육도 못했고. 저는 그 말에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 '남학생은 오지마라. 보지마라.'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산모 제 케이스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안된다'고... 저는 너무 속상해서 사실 선생님께 제가 빼졌어요. 어떻

게 보면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일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편견을 갖고 제지를 하니깐 그것 때문에 흥미는 되게 많았는데 그 순간부터 흥미를 잃게 만들었어요." (실습에 대한 흥미상실; Disinterestment of clinical practice)

4) 여성 중심적 시설(facilities for women)

이상과 같은 실습교육 체계로 인한 어려움 이외에 남자간호학생들은 분만실이라는 여성중심의 시설 안에서 화장실 사용조차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실습에 임하게 되었다.

"거기는 직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쓰는 화장실. 소변 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울 보면서 양치질하고 있었는데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나가서 하고 오라고.' 그래서 못가고..." (일상생활의 불편함; Inconvenience in daily life)

주제모음 5. 배움과 인식의 변화(Learning and new perception)

1) 분만에 대한 기대감(anticipation for delivery processes)

남자간호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인 동시에 남자로서는 평생 보기 어려운 분만과정을 실습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록 충분한 관찰은 아니었지만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분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감정을 경험하였다.

"자연 분만은 아니더라도 제왕절개도 인상에 남았던게 너무 신기했어요. 절개를 했는데 양 막이 이렇게 있는거예요. 터뜨리 시니까 물 풍선 터지듯이 터지는데 애기를 머리부터 양손으로 꺼내는데 아기가 못생겼어요. 얼굴이 주글주글해서 못생긴 애를... 무표정인 상태에서 꺼내자마자 소리지르면서 우는데...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때 감정은 경이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태어난 아이도 누가 나 건드렸다고 울고 그러니까 그때 경험을 아직도 설레었던 감정을 갖고 있는데..." (출생과정의 경이로움; Appreciation for delivery processes)

2) 학습에 도움(supplement to education)

남자간호학생들은 여성의 신체, 생리 및 질병과 분만에 관련된 모성간호학은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어렵

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통하여 검사 및 분만과정 등을 직접 볼 수 있음으로써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론적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냥 저도 배운 건 이제 분만 과정이랑 분만 1기, 2기, 3기, 4기 때 책으로만 봤을 때는 헛갈리고 이해가 안 됐는데, 진짜 보고나니까 1기 때는 어땠고 2기 때 어땠고, 분만 과정이 이제 한 눈에 이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the curriculum)

3) 이해와 감사(understanding and gratefulness)

한편 남자간호학생들은 산모들이 출산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여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착을 이성적이지 못하고 여성 특유의 감정적인 집착으로 생각하였으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성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을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엄마가 저한테 무한적인 사랑을 베풀 때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이 좀 이성적이라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데 여자들한테는 어머니가 되고 자식한테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틀렸어도 내 자식이니까 감싸주고 하는게... 애를 낳기 전일부터 뱃속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그 때부터 끊을 수 없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여성에 대한 이해; Sympathy for women)

남자간호학생들은 분만과정에서 산모의 고통과 새 생명의 탄생, 이로 인한 기쁨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자신들의 어머니도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출산을 하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길러 주었음을 깨닫게 되어 새삼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실습 후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다.

"저는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것을 많이 알았어요. 간호학과에 들어오기 전에도 엄마는 위대하다는 말을 많이 들긴 했는데 와서 보니까 60시간씩 힘들게 낳잖아요. 어머니도 이렇게 나를 낳

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만을 보고나서 저는 감격 때문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놓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 Gratefulness to one's mother)

또한 남자간호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울 때에는 산모와 아이들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고 낯설게 느껴졌으나 분만실 실습 경험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과정 및 모성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관심이 생겼으며 모아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산모들한테 아이가진 엄마들에게 말을 못 걸었는데 분만실 실습을 하고 나니까 지금 딱 그 모습이 아니라 얼마 전 그 배부른 모습이 보이고요 애기만 봐도 몇 개월인지 묻고 싶고. 지하철 같은데도 애기를 엮고 있으면 보통 남자들은 몰라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는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모아에 대한 친근감; Friendliness towards mothers and childs)

논 의

연구결과 남자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경험은 성 역할에 대한 문화적 인식, 남자간호사에 대한 현실 인식, 대상자 접근의 어려움, 비교육적 환경, 배움과 인식의 변화라는 주제 모음으로 구조화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주제모음인 '성 역할에 대한 문화적 인식'은 분만실 실습 경험에서 독특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남자간호학생들은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 및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실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특히 젊은 층의 여성대상자들을 단지 이성으로만 인식하여 민망함이나 불편함을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남자간호학생들이 실습현장에서 여자 환자에 대한 검사나 간호를 할 때 또는 젊은 층의 간호사에게서 성 역할 긴장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Choi & Park, 2001; Lee, 1997; Streubert, 1994)와 동일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자간호사들도 여성대상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성 역할 긴장을 경험(Ann, 2008)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는 남자간호학생의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보다는 남녀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으로부터 유발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성 인식과 관련된 불편함은 남자간호학생을 대하는 여성대상자에게서도 나타난 현상으로 이는 분만과

정에서 대상자에게 수행하는 일 없이 단지 관찰만 하는 남자간호학생의 존재가 의료인이 아닌 남자로서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전문직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간호사와 대상자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 고정관념이 낮은 반면 가정주부와 행정 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Kim, 1991) 보았을 때 성 고정관념은 전문직업적 가치관에 따라서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간호전문직의 철학과 태도를 간호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남자간호학생들이 경험한 여학생과의 차별대우는 여자간호학생들의 경우 실습 시 남녀 환자에 대한 성 구분을 하지 않고 배치하는 반면, 남자간호학생들의 경우 주로 남자 환자에게 배치하거나 부인과 병동은 실습에서 제외시킨다는 연구결과(Choi, 2002)를 지지한다. 이는 남자간호학생을 위한 교육체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남학생들이 임상 실습 전반에 걸쳐 여학생과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분만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 더욱 여성중심적인 환경으로 우리사회의 저변에 뿌리내린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즉, 남자간호학생을 지도하는 간호사들도 남자간호학생과의 성적 차이로 인한 낯설음과 불편함을 느끼며 여성대상자들의 요구와 남자간호학생에 대한 실습지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적절한 성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남자간호학생들은 의료계의 이런 성 차별 대우가 의사들과 같은 전문직과는 무관한 현상임을 발견하기도 하였으나 또한 분만실은 앞으로 자신들의 취업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이를 단지 문화적 현상으로만 이해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실습에 대한 태도를 더욱 소극적이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간호현장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남자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Lee, 2004), 남학생이 간호전문성을 갖추게 되는데 필요한 가치 및 신념 형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직업 정체성을 갖는데 혼동을 주기 때문에(Evans, 2004) 간호가 전문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 고정관념은 극복해야 될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각적인 차원에서 간호현장의 성 역할 인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성과 남성 역할을 두루 수용할 수 있는 양성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접근의 어려움’은 임상 실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 분만실이라는 여성중심의 공간에서 성에 대한 인식 및 실습기관의 규칙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차단되는 남자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산모나 보호자의 거부반응 및 여성 대상자와의 불편함으로 인한 위축감은 남학생의 신생아실 실습경험에 대한 인식(Baek & Lee, 2005)과 남학생의 간호학 전공경험(Kim, 2004)에서도 보고된 결과로 이러한 현상은 간호학은 여성중심의 교과과정, 시험과 학습 형태를 띠며 실습의 특성상 남학생들이 배제되는 상황이었다는 선행연구(Brady & Sherrod, 2003; Choi, 2002; Stott, 2004)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대상자 접근의 어려움은 남자간호학생들에게 지나친 눈치와 조심스러운 태도, 자신의 역할회피와 소극적 태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자간호사로서의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이러한 결과와 상이한 연구로는 산부인과 환자들이 남자간호사에게 간호를 받은 후 여자간호사를 선호하는 수가 적어진 것으로 나타나(Lodge, Mallett, Blake, & Fryatt, 1997) 간호현장에서의 성 고정관념은 앞으로 남자간호사의 수가 늘어나고 전문직업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대상자들과 상호작용하게 됨으로써 점차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점으로 간호의 미래를 조망할 때 간호사들이 성 역할에 대한 보다 조화로운 인식을 하며 동시에 남자간호학생을 대상자 간호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교수와 임상지도자간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네 번째 주제모음인 ‘비교육적 환경’은 간호사들의 남학생에 대한 무관심 및 일관성 없는 지도와 같은 교육체계의 미비함에서 경험한 어려움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방해되는 존재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이 간호 교과과정에서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남학생을 위한 지도력 부재, 간호학에서 남성의 경력부재, 여성중심의 강의라고 보고한 O'Lynn (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의 불편함과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남자간호학생의 임상 실습 경험(Choi & Park, 2001)에서 파악된 탈의실 사용의 불편함과 같은 맥락으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남학생들이 여성중심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교육에 있어서 돌봄은 간호교육자-학생관계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돌봄의 능력은 돌봄을 받아 본 경험에 의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되므로(Stein, 1986) 실습과정에서 간호사로부터 받은 돌봄 경험은 앞으로 돌봄 행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분만사례의 부족은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그리고 임상실습지의 대부분을 이루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의 분만전수 감소로 인하여 충분한 대상자를 접할 수 없는 현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활력징후 측정이나 침상 만들기, 비디오 보기와 같은 활동으로 시간을 매우게 되어 분만실 실습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본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분만이 여성전문병원에서 이루어져 간호학생들의 분만실 실습기반도 여성전문병원이 선택되고 있으며 대학, 종합병원 실습군에 비해 여성전문병원 실습군에서 간호수행 경험이 다양하고 실습 태도도 좋은 것으로(Youn & Cho, 2010) 나타나 고무적인 현상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분만실 실습은 성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이로 인한 대상자 접근의 어려움, 남학생들에 대한 비교육적 환경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비하고 경이로운 첫 경험이었으며 여성간호학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현장학습이었다. 출생과정에서의 경이로운 느낌은 남자간호학생의 임상실습(Lee, 1997)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였으며 대학생의 분만에 관한 조사(Cleetom, 2001)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경이로움'은 자신의 전공을 떠나서 출생에 대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만실 실습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던 여성의 심리를 이해하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게 된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며 이는 분만실 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반응(Kim, 2004)에서 나타난 '여성의 위대함'과도 같은 맥락으로 분만실 실습이 남녀 간호학생 모두에게 여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고취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남자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비교육적 체계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남자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성 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와 남자간호학생을 위한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focus group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남자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여 남자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남자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 경험의 의미는 성 역할에 대한 문화적 인식, 남자간호사에 대한 현실 인식, 대상자 접근의 어려움, 비교육적 환경, 배움과 인식의 변화'로 구조화하였다. '성 역할에 대한 문화적 인식'은 성에 대한 인식, 차별대우, 남자로서의 성 역할 인식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남자간호사에 대한 현실 인식'에 대한 주제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며 '대상자 접근의 어려움'은 금남의 집, 위축됨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비교육적 환경'은 역할상실, 교육체계의 부족, 마음의 상처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배움과 인식의 변화'는 분만에 대한 기대감, 학습에 도움, 이해와 감사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남자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은 다른 병동 실습에 비해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성 차별 대우 속에서 미래의 남자간호사로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입장을 모색하고 모성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마련해준 경험이었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간호현장의 비교육적인 환경은 남자간호학생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이는 간호현장의 여성중심적인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기에 간호교육의 발전과 간호전문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재구성하는데 대한 의미있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습현장에서 남학생을 지도하는 간호사와 여성대상자들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남자간호학생에 대한 인식 및 기대를 함께 파악하여 다각적인 차원에서 실습교육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nn, K. H. (2009). Analysis of the work experience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1(6), 652-665.
- Baek, K. S., & Lee, J. W. (2005). Perspective patterns of male nurse students on practice experience in the newborn baby roo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2), 232-239.
- Boughn, S. (2001). Way women and men choose nursing. *Nursing & Health Care Perspectives*, 22(1), 14-19.
- Brady, M. S., & Sherrod, D. R. (2003). Retaining men in nursing programs designed for women. *Journal of Nursing Edu-*

- cation, 42(4), 159-162.
- Choi, S. J. (2002). *Male students' lived experience in the female-dominant nursing colle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Choi, S. J., & Park, K. M. (2001).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5*(1), 129-139.
- Cleeton, E. R. (2001). Attitudes and beliefs about childbirth among college students: Results of an educational intervention. *Birth, 28*(3), 192-200.
- Cola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Evans, J. (2004). Men nurse: A historical and feminist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7*(3), 321-328.
- Ha, N. S., Han, K. S., & Choi, J. (1998). The relation of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and stress respons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8*(2), 358-368.
- Halstead, J. A., Rains, J. W., Boland, D. L., & May, F. E. (1996). Reconceptualizing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Outcomes and competencies for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5*(9), 413-416.
- Haywood, M. (1994). Male order. *Nursing Times, 90*(20), 52.
- Kim, E. Y. (1991). *A study on gender stereotypes: The influence of age and education factors on gender stereotyp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M. H. (2004). A study of male students' experience majoring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0*(2), 183-193.
- Kim, S. J., Kim, H. J., Lee, K. J., & Lee, S. O. (1999). *Research methodology of focus group*. Seoul in Korea: Hyunmoonsa.
- Korean Nurse Association (2009).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Retrieved november 5, 2009, from KNA web site: <http://www.nursenews.co.kr>
- Lee, D. J.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J. S., Kim, N. J., Doo, H. J., An, J. Y., & Lee, Y. K. (2005).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2), 159-169.
- Lee, K. H. (1997). The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s of male nursing students. *Collection of Dissertations of Halla College, 255-273*.
- Lee, S. E. (2001).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7*(2), 333-348.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Lodge, N., Mallett, J., Blake, P., & Fryatt, I. (1997). A study to ascertain gynecological patients' perceived levels of embarrassment wi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care given by female and male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5), 893-907.
- O'Lynn, C. E. (2004). Gender-based barriers for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valence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3*(5), 229-236.
- Stein, A. P. (1986). Teaching nurse to care. *Nurse Educator, 11*(6), 4.
- Streubert, H. J. (1994). Mal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experience. *Nurse Educator, 19*(5), 28-31.
- Stott, A. (2004). Issues in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the male student nurse: Implication for reten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s. *Nurse Education Today, 24*, 91-97.
- Youn, M. S., & Cho, J. Y. (2010). Experience and confidence on clinical nursing performance in delivery room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clinical practice setting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2), 909-921.